

“국태민안 · 전법도생 위해 정진”

김제 금산사, 10월 22일 1417주년 개산대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미륵도량인 김제 금산사가 개산 1417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22일 백제 법왕원년(599년)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조사스님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 진력한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개산대재는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한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와 부도전 참배에 이어 개산 1417주년 기념예참, 육법공양, 기념대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산대재에는 조실 월주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 이춘석 · 유성엽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계는 물론 종교간, 남북간, 지역간, 집단간, 개인간의 반목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불신에 의한 혼란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불교인들은 한결같이 4불괴정, 4불괴신으로 대표되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세상을 선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개산 이래 역대 고승과 선덕께서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조의 혜명을 받들고 법등을 면면히 밝혀왔다”며 “개산대재 참석 대중도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사불괴정과 동체대비심을 실천해 국태민안과 전법도생에 정진하자”고 설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봉행됐으며 가수 신계행, 김용진, 박성환 밴드가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가을 문화한마당이 펼쳐졌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량에는 개산 1417주년을 축하하는 형형색색의 만등이 불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문화재 영산작법 한옥마을서 시연

전주시 무형문화재 주간 맞아 대중에 선봬

우리나라 3대 소리로 일컬어지는 어산을 비롯한 불교전통문화예술인 영산작법을 일반대중에게 선보이는 시연회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는 10월 22일 전주 한옥마을 문화재전수 공연장에서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연회에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혜안 스님(익산 태봉사), 교육원장 지산 스님(마음머무는 절), 도정 스님(도인사)을 비롯한 20여 명의 전수자와 이수자 스님들이 동참해 불교의 전통예술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열린 시연은 불교의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많은 불교 전통문화 중에서 영산작법이라는 어산과 착복은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며 “한옥마을에서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고유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산작법보존회의 시연을 지켜본 한 관광객은 “영산작법이 전주 소리축제와 한옥마을과 잘 어울리고, 스님들의 소리와 춤사위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장중한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의선사 뜻 이어 차문화 확산 주력”

대흥사 · 해남다인회, 제25회 초의문화제



해남 대흥사와 해남다인회는 10월 15~23일 대흥사 일원서 한국 차문화 중흥조인 초의선사를 기리는 ‘초의문화제’를 봉행했다.

전국 차(茶)인들이 바다와 맞닿은 남도 끝 해남에 모였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와 (사)해남다인회는 10월 15~23일 대흥사 및 해남일원서 ‘제25회 초의문화제’를 봉행했다.

한국 전통차의 중흥조인 초의선사는 차와 선이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바탕으로 다도의 이론을 정리하고 차를 만들어 차문화를 확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초의문화제는 이런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 발전시키고자 대흥사에서 1992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이번 초의문화제는 17일 초의주간 선포에 이어 ‘초의 조선의 차를 말하다’ 좌담회, 초의 차 퍼포먼스 등이 해남문화원에서 진행됐다. 또 해남다인회 주관 아래 22일까지 해남지역 중고등학교서 ‘초의란 누구’ 주제로 단체 강연이 열렸고, 10여개 초등학교서 다도체험이 이뤄져 초의선사와 전통차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본 행사가 열린 22일 대흥사에서는 회주 보선 스님, 주지 월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정관계인사와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듬어린이집 원아들의 ‘아름다운 찻자리 시연’에 이어 차학술 논문 발표, 육법공양, 인드라 스님의 산사음악회, 초의문화제 기념식,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권위 있는 차

10월 15~23일 초의주간 선포
청소년 위한 다도체험 · 강연과
다도시연 및 전통체험 펼쳐져

문화 예술인상인 ‘초의상’은 올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인들은 물질적 만족에 매달리면서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 우리 차(茶)를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차의 성지인 대흥사는 우리 차를 육성하고 보급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차(茶)와 선(禪)을 주창하셨던 초의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초의문화제가 차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본 행사 외에 행사장 주변에는 지역 다인회의 차 시음회와 부채 · 다포 그리기, 한지공예, 황토염색, 꽃차체험, 도자기 빚기, 도자기 및 차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흥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재일교포 동강 하정웅 선생, 10월 4일 장만채 전남교육감, 10월 11일 조정래 작가, 10월 19일 동국선원장 정찬 스님 특강에 이어 11월 4일 황금 십자패 복원 세미나, 11월 16일 김병조 교수 〈명심보감〉 특강, 11월 29일 중앙승가대학 보각 스님 특강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韓 · 美 장병들, 한국불교문화 ‘Good’

고창 선운사서 템플라이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 미군 장병들이 고즈넉한 산사서 다양한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0월 22일 미 8공군 전투비행단(단장 도지어 대령)과 공군 제38비행전대(전대장 이성복 대령)를 대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라이프를 개최했다.

미 8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미국인 17명과 38전투비행단 소속 한국인 19명 등 37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라이프는 공군 부대 군법당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산 김윤봉 거사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선운사에 도착해 사찰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사찰예절을 배운 이들은 선운사 포교국장 원정 스님의 지도 아래 걷기명상, 다도, 좌선, 범종 타종 등 다양한



스님과의 차담서 전통차를 즐기는 양국 장병들.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 공군 병사들은 사찰의 사물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개인별로 직접 범종을 쳐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미군 병사들은 처음 접하는 사찰음식과 저녁예불, 걷기 명상시간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인솔한 여산 김윤봉 거사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사찰, 불교전통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한국과 미군 병사들이 함께 어울리며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의 자연과 불교문화를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한마음선원, 쌀 2000kg 전달

어려운 이웃에게 사찰 신도들이 정성을 모은 쌀을 전달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0월 25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 2000kg을 광주전남불교 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탁,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용섭 신도회장이 참여한 이날 전달식에서 10kg 200개 포대의 쌀은 서구지역 18개동 200세대 독거노인 세대를 포함한 기초수급자 세대에 전달돼 겨울을 나는 식량으로 사용된다.

김용섭 회장은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늘 봄과 가을에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겨울에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가족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복지여건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지만, 1만6천여 명의 기초수급자중 5% 정도가 독거노인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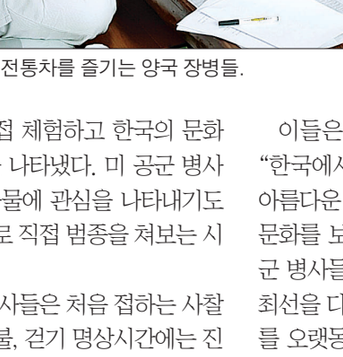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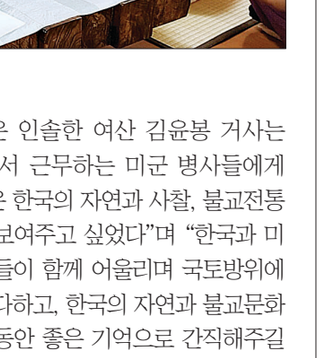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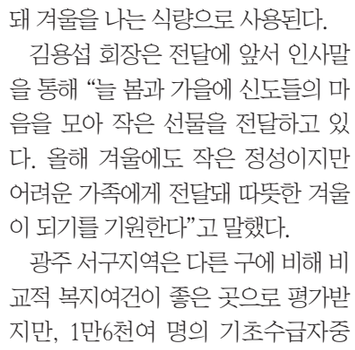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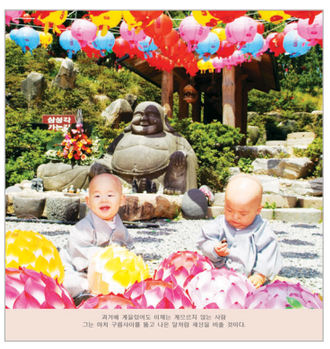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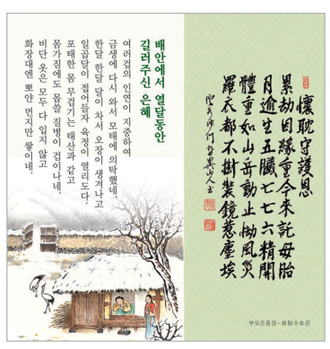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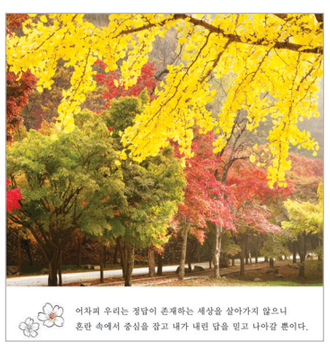
12절 258㎜×265㎜

1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